

## 위기가 기회가 된 행복

집으로 퇴근해서 돌아오는 차속에서 불현듯 행복감으로 마음이 가득 차오른다. 오늘의 행복의 실마리는 딸의 김치에서 시작된다. 사무실에서 함께 일하는 선생님이 가지런히 김치 하나와 된장국을 차려놓았기에 맛있게 먹었는데 김치가 아삭아삭 씹히는 소리와 동시에 맛또한 기가막히게 “와! 한국에서 먹어보던 깔끔한 김장 김치맛 이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보니 시집간지 9 달된 딸아이가 담가서 조금 갖다놓은 김치였다는 것이었다. 역시나 하면서 딸에게 맛있게 담갔다고 칭찬을 해주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불현듯 딸아이의 삶이 가슴으로 묻어오기 시작했다. 직장 다니며, 취미가 각별한 배구팀으로 뛰면서, 오후에는 또 자신의 취미를 배우느라 롱아이랜드에서 맨하탄으로 분주히 뛰면서도 남편의 저녁식사는 꼭 집에서 웰빙음식으로 깔끔히 요리해주며 살아가는 딸아이다. 요즘 아이들 외식으로 때우는게 다반사인데 반해 영양과 청결함을 이유로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외식을 절대 안하는 딸아이다. 내가 생각해도 혀를 내두를 정도로 삶의 에저지와 열정이 대단한 아이다. 가슴의 뿌듯함으로 딸아이에게 전화를 걸어 “우리딸 같은 딸이 없는것 같애. 요즘 아이들이 김치를 담아 먹는다는데 나는 내딸이지만 믿어지지 않는다. 참 대견해. 그리고 이엄마는 이런 딸이 있어 행복해” 했더니 전화 너머에서 딸의 귀여운 웃음이 넘친다. 그리고 이어서 딸에게 “엄마는 너희들 어렸을때 생활이 어렵고 엄마하는 일이 바빠서 제대로 돌봐주지 못하고 음식도 제대로 챙겨주지도 못한것같은데 어떻게 그렇게 잘하는지 엄마가 고맙고 미안해” 했더니 “엄마, 그렇게 우리가 힘들고 어려웠던 시간들이 있었으니까 우리가 이렇게 다른 아이들보다 강하고 더 잘배우게 됐잖아, 난 그래서 그게 더 고마워”하는 것이었다. 딸아이의 말이 백번 맞는 말이었다. 그러나 그것은 어른인 엄마이니까 그렇게 깨닫고 말하기가 쉬운것이지 겪은 어린아이들인 당사자들이 그렇게 깨닫고 말하기는 쉽지는 않은 부분이었는데도 딸아이는 대견한말을 내게 해주는 것이었다. 그말이 나는 또 더더욱 고맙고 감격스러워 행복의 지수가 막 높아지는 순간이었다. 그렇다 삶의 행복은 이렇게 작은것에서 시작되는 평범함에서 부터이다. 그리고

더큰 행복은 삶의 환경과 어려움을 극복하는데서 더큰 보상으로 우리에게 더해질때인 것이다. 요즘 내가 만나는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충분히 잘해주지 못하고 특히 물질적으로 다른 부모님들처럼 자녀들에게 풍족하게 해주지 못해 마음을 아파 하시는 분들을 많이 만난다. 나는 그럴때마다 그분들께”부모로서 미안해하고 안쓰러운 마음을 느끼실수는 있지만 그것으로 자책이나 괴로워하시면 안된다”라고 말씀을 드린다. 물질적으로 풍성하지못해 절약하며 살아가야 하는 생활이 조금, 아니 많이 불편할수는 있다. 그러나 그것으로 미안함, 그리고 자책으로 괴로워하는것으로 끝나면 그 가난은 우리의 삶을 할퀴는 상처만을 내고 갈것이다.그리고 그상처는 우리의 삶을 많이 황폐하게 만들어버릴수도 있다. 그러나 그 가난함을 당당히 이겨나가는 건강하고 성실한 삶의 최선을 자녀들에게 가르쳐주면 그 가난은 자녀들에게 돈으로 살수없는 평생의 값진 자산을 만들어내게 하는 절호의 기회가 될수있다. 요즘같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져 당황하시는 많은 부모님들께 힘찬 격려를 드리고 싶다. 이렇게 여건과 상황이 어려워진 기회를 맞아(?) 부모님들이 넉넉하고 풍족할때는 자칫 소홀하게 여기게 될수있는 부분들을 오히려 자녀들에게 가르칠수있는 기회로 만들어보면 어떨까? 절약하고 아끼며 자신들에게 주어진것을 감사할줄 알게하는 그 훌륭한 교육을 통한 아이들의 바른 가치관에 대해서 말이다. 아마 이것으로 인해 아이들이 자란후에 오히려 그 어려웠던 상황을 통해 깨닫게 되었던 삶의 가치있는 깨달음으로 인해 고마워하는 성숙함으로 우리의 삶의 축복으로 되돌아오지 않을까? 그렇다 주어진 삶에 대한 부모의 성숙한 관점과 시각에 따라 우리의 모든 상황은 ,심지어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교육적 가치를 충분히 만들어낼수 있는것이다. 그래서 위기는 기회일수 있는 것이다.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부모 의 성숙함이 필요한 시기인것 같다.